



가축생산 조절로 가격안정

- 축협, 올부터 축산관측사업 적극 전개키로 -

3~4개월 후 사육두수 감소향 예고

축협중앙회는 양축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절과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금년부터 축산관측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2일 축협에 의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축산관측 사업은 일종의 축산경기 예고제로서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3~6개월 후의 사육 마리와 수급 및 가격동향을 주기적으로 예측, 이를 양축농가에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사육마리 수를 조절, 농가소득과 시중 축산물 가격안정을 기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축협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전국적으로 4천여 양축농가를 표본으로 선정, 우편설문조사 및 지방축협요원으로 하여금 사육마리수·경영방향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과거의 경기변동에 따른 가격, 사육마리수 변동사례, 그리고 선진 각국의 축산동향을 종합하여 양축농가를 지도할 계획이다.

축협은 금년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조사기반을 확립하고 우선 1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돼지·닭(산란계·육계)의 관



△ 축협은 올부터 적극적인 축산관측 업무를 전개 할 예정이다

측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축협은 이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계획도 마련 중이다.

축협이 관측사업 확대를 서두르는 것은 지금까지 양축농민들이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매년 축산물의 파잉과 품귀현상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을 막고 축산경영의 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다.

농협, 판매사업 단위조합에 이관

- 농산물 유통원활 수급안정 -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의 원활로 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해 농협시·군조합의 판매 사업을 이달부터 단위조합에 이관하여 단위조합이 정책수매사업·매취사업·수탁사업등을 직접 주도하도록 했다.

2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조직이 올해부터 중앙회→시·군지부→단위조합으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1천 4백 75개 단위조합이 지역 특성에 알맞는 각종 판매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월부터 시·군지부의 판매

사업중 군남 일부를 제외한 전판매사업을 단위조합 주관하에 실시토록 했다.

농협은 이에따라 단위조합과 지역별로 이미 조직돼 있는 작목반·협동회 등 영농조직을 직결시켜 계통출하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40개 소비지에 출하상담실을 설치하여 농산물 시세, 출하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농민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또한 1천 6백개의 산지 판매장·집하장에서 연내로 6백개를 상설 판매장으로 육성, 간헐적으로 운영하던 산지판매 사업을 연중 실시키로 했다.

축협, 전지분유 수매

- 서울우유 등 5개 업체에서 5백톤 -



△ 축협은 분유재고 해소를 위해 전지분유를 수매했다

축협중앙회는 유가공업체의 분유재고 해소를 위해 1차로 서울우유 등 5개 업체에서 5백톤을 수매했다.

축협은 최근 우유 소비 둔화로 유가공업체에 상당량의 분유재고가 누적, 정상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데다 낙농가에 대한 납유대금체 불등으로 낙농경영이 압박을 받고 있

는 점을 감안, 모두 2천톤을 수매기로 하고 이중 5백톤을 1차로 구매한 것이다.

한 업체당 5백톤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는 서울우유 등 5개업체를 대상으로 톤당 2백 98만원에 수매한 이번 사업은 총 14억 9천만원이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된다.

이번에 1차로 수매한 전지분유의 업체별 수매내용을 보면 서울우유가 2백 24톤 6억 6천 7백 52만원으로 가장 많고, 매일유업이 1백 6톤에 3억 1천 5백 88만원, 대우유업이 60톤 1억 7천 8백 80만원, 해태유업이 55.5톤 1억 6천 5백 39만원, 부산 경남우유가 54.5톤 1억 6천 2백 41만원이다.

그런데 현재 유업체의 전지분유 재고량은 모두 5천 1백 90톤 1백 6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연유 등 기타제품까지 합치면 총 8천 7백톤 2백 7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축개량협회 '81년도 대의원 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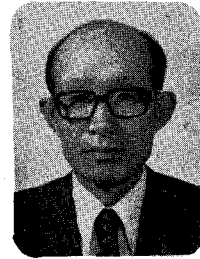
- 신임 이사 및 감사 선임 -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황영구)는 1981년도 대의원 총회를 지난 1월 28일 축산회관 3층 당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98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198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승인 임원개선을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초대회장 육종용 교수(서울대)에 대한 공로패증정과 김경남 국립종축장(남원지점장), 김순갑(축협 중앙회 기술지원단장)씨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등록 사업에 적극 협력 선도한 이종근(규환목장), 김보운(고봉산 농장), 왕기창(대현농장), 한국양토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이날 선임된 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 황영구(동농농원), 유윤수(서울우유), 김남재(부산우유), 조광양(천안낙협),



(황영구 회장)

김태신(낙농비육협회), 김선환(축협), 김두립(전남), 정길본(경북), 민중기(인농목장), 윤여창(창령원목장), 김달수(경남), 윤도진(이천제일농장), 이인혁(제일종축농장), 유복기(경기) 조성국(한국양토조합)

감사: 심언중(동아목장), 왕기창(대현농장),

농업기술자협회 겨울 농민대학 개최

- 전·후기로 나누어 6개반 설강 -

농업 기술자 협회(총재: 류 달영)는 새로운 영농 정보와 과학적인 농업 기술 및 농업 경영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리위주의 연수로 농가 소득 증대와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81 겨울 농민대학을 전·후기로 나누어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월 12일 오후부터 16일 까지 개최되는 전기반은 채소, 과수, 식량·특수영농 등 3개 과가 2월 16일 오후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후기반에는 시설원예·화훼, 사과·왜성사과,

축산 경영 등 3개 과가 설강된다.

동 대학은 국내 영농기술 교육사상 가장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배움의 광장으로 1965년 이래 115기에 걸쳐 연 1만 3천 8백55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강자격은 아무런 제한이 없고 누구 나와서 최신의 영농 정보와 최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배움의 광장인 이번 81 겨울 농민대학의 수강 신청은 서신이나 전화 또는 당일 등록도 가능하다 수강 신청은 농업 기술자 협회 사무국(447-0972)으로 하면 된다.

동물약품협회 정기총회 성료

- 최죽송 회장 유임 -

한국동물약품협회 1980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5일(목) 오후 종로구 무악동 소재 한동빌딩 203호 당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80년도 사업보고와 수지결산 심의와 81년도 사업계획 심의에 이어 계속된 임원개선에서는 최죽송회장(한풍산업)이 유임되었으며 부회장에는 이완상(삼우화학), 강승조(이글케미칼)씨가 각각 선임되었다. 또 감사이었던 이태일(과학축산), 서정범(제일화학)씨는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날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

이사 : 김흥기(대한신약), 김길원(한국바이



(최죽송 회장)

엘), 이오직(한국동물약품), 신정재(과학사료), 조성용(대성미생물), 김무진(중앙약품) 이태일(과학축산), 서정범(제일화학), 장인상(녹십자)

감사 : 이정협(이화약품), 윤병성(유니화학)

육용종계 경영자 세미나 개최예정

- 천호부회장, 오는 2월 20일부터 -

천호부회장(대표:이계조)은 제3회 육용종계경영자 세미나를 오는 2월 20일부터 2일간 당사 세미나 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981년도 육계업과 부화업의 전망과 함께 경영목표, 판매전략, 부화장과 종계장 질병문제, 사양관리, 육용계 육용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이번 세미나의 대상은 전국의 육용종계 경영자인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10까지 천호부회장(전화 433-2907~9)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1981년. 2. 20~21일(2일간)

장 소 : 천호부회장 세미나 룸, 아카데미룸

세미나 내용 및 강사 :

판매전략...한국생산성본부

81년도 육계업 및 부화업 전망...김정웅 상무(천호)

육용종계 경영목표...김호섭 차장(천호)

종계장 및 부화장의 문제질병 I...오경록 실장(천호)

종계장 및 부화장의 문제질병 II...박근식 계역과장(가축위생연구소)

육용종계 육종방향...박영일 박사(서울농대)

종계 사양관리 기본 프로그램...강천득부장(천호)

이밖에 천호부회장 종계장 및 부화장 견학

분뇨처리 전문업체 육성토록

- 산업공해연구소,

기술향상 위한 지원 촉구-

공해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액상폐기물(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인구 5만 이상인 37개시와 1백38개군 2백 76개소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공해연구소가 분석한 분뇨의 현황과 문제점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70년초 일본의 분뇨처리 시설을 모방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시작, 이제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상당수와 10여개의 전문처리시설 설치업체들이 있으나 대부분이 기초조사능력부족, 기술과 자금력의 취약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폐기물의 완전한 처리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설치된 분뇨처리 시설은 대부분이 최소 8kℓ에서 30kℓ 미만의 소규모 처리장인데다가 성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공해연구소는 분뇨처리 분야를 육성, 공해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뇨처리 전



△분뇨의 효율적처리를 위해서는 전문업체의 육성이 시급하다

문업체의 선별육성과 시설 및 기술보완, 운전요원의 처우개선 및 재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과감한 국고보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규모로 보아 분뇨를 충분히 소화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구 2백만 이상 시의 경우 최소한 5백kℓ급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20~1백만명 이상시는 1백 kℓ에서 2백 kℓ 이상의 처리시설이 필요하며 1백 38개군 2백 76개소에 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는 이같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1천 1백50억원의 자금 소요가 불가피하며 상당한 국고보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1 세계 가금 박람회 시찰팀 출국

- 조 만옥 본회 이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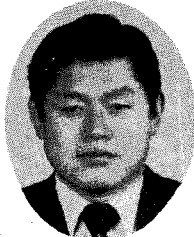
단장으로 지난 21일 미국으로 -

세계 최대의 가금 박람회인 미국 조지아주의 아트란타 '81 가금 박람회에 우리나라에서도 8명의 대표가 참석 하였다.

호산나 부회장의 조 만옥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대표단은 1월 21일 부터 23일까지 3일간 박람회에 참석한 후에 오진 양행(대표 정 진국)이 미국의 E. Holzer 회사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약 10일간의 미국 양계 지대의 부화장 GPS P.S CC (산란 및 육용) 농장 견학과 각종 양계 분야의 기계기구공장 도계장, 사료공장, 축산물 유통 과정등을 시찰하게 된다. 이번 참가팀들은 우리업체의 젊은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비 절감이 시급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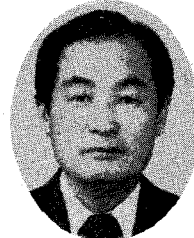
(조만옥)



(김영환)



(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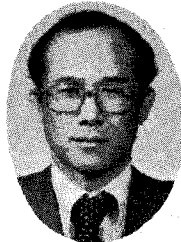
(서정환)

때 이번 시찰팀이 전세계의 양계 사양관리 시설과 각 전문 분야별 세미나에 참석함으로써 귀국후에 우리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가금 처리장 시설등 전문분야 별로 단원들이 담당하여 집중적인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는 각오와 준비로 이번 전람회 참석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 자명이다. 이번 조사 연구팀이 떠나기 까지 후원하여준 농수산부 축산과 주한미 대사관 농무관실 미국 사료곡물 협회 한국지부 직접 미국에서의 시찰 안내를 담당한 E. Holzer와 한국 대리점 오진양행 등에 감사하며 본회에서는 6월의 하노바 박람회등 앞으로 해외 기술 습득을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계속 할 것이며 이에 참여 코저하는 회원은 본회 월간 양계 편집부에 협의하여 주기 바란다.

참석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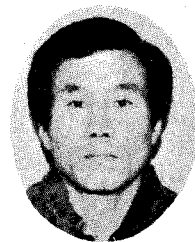
- 조만옥 단장, 호산나 부회장 대표, 본회이사,
- 김영환 부단장, 신흥 부회장 대표, 본회이사
- 정상태 홍성부회장 대표
- 서정환 세원농장 대표
- 박만후 과학축산 대표
- 임규범 번사농장 대표
- 박준기 동신 부회장 대표
- 신정재 SF과학사로 대표



(신정재)



(임규범)



(박준기)



(박만후)

근검절약 생활화로 복지사회 이룩하자

생산국·소비국 공동출자 곡물 비축제 창설제의

- 미국, 수급사정 나쁠때 방출 -

미국은 소맥·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해 생산국과 소비국의 공동출자에 의한 국제적인 곡물비축 제도를 창설할 예정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의하면 이 제도는 미국 등 곡물수출국 내에 잉여곡물을 비축해 두었다가 수급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에 참가국에 우선적으로 방출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비축 대상에서

쌀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대소곡수 조치가 해결될 때를 대비해서 이와같은 새로운 국제 곡물비축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 비축제도에는 미국외에 캐나다, 호주, 알젠틴, EEC 9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등 개발국과 소련, 동구제국 외에 중공도 참가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계우회연합회 제 2 회 정기총회 개최

- 회장에 강희구씨 선임 -

전국 계우연합회는 1981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1월 20일 오후 신문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김종현 회장의 인사말과 이재근 교수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계우회 연합회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은 허돈, 이중배 난가조 절위원과 김중곤 현대양계사 대표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81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에 이어했수로 따져 2년의 임기가 끝나는 전임원의 개선을 실시했다.

현 의장단이 선정한 전형위원 김종현(한국 계우회), 김갑수(강화계우회), 강서호(신도 계우회), 허 돈(청천농장), 김영식(오포 계우회), 이용관(천안계우회), 최창해 고문 등 7명에 의해 회장에 강희구(협동계우회, 전 연합회 부회장)씨가 선출되었다. 또 부회장에는 심준식(천호계우회), 임용택(파주 계우



(강희구 회장)

회), 김광옥(양계 협회 동두천분회), 백승덕(대구축협), 김태환(전남양계협의회)씨등 5명을 선임했다.

한편 고문에는 김종현, 민덕기, 최창해, 김중곤, 이재

근, 박영인씨를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0년도 결산심의와 '81년도 예산안의 검토와 부의안건으로 80년도 미납회비의 정리문제와 제란제값받기 운동, 유통구조 개선사업, 소비촉진 홍보사업, 불량사료 추방지도사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수료 등 각종 부과금 과다

- 농경연조사, 법정시장 이용을 낮춘 주요인 -

농민들 유사시장 이용도 높아

농수산물을 법정 도매시장에 내다 팔면 너무 많은 각종 부과금이 징수되고 있어 농민들이나 일반 상인들이 법정시장을 기피하고 유사시장으로 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이 서울지역 청과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각종 부과금 징수 실태에 따르면 명목상장 수수료가 6~7%, 하차비(하주부담) 1%, 장내정리비(하주부담) 2%, 부가가치세(하주부담), 상장 수수료의 10%, 중매인 수수료(소매상부담) 3~4%, 부가가치세(중매인) 중매인 수수료의 10%, 상차비(소매상부담) 1.08% 등으로 세율이 높은데다 복잡하여 도매시장 이용율이 27.8%에 그치고 있다.

반면 유사도매시장에서의 부과금 징수료보면 명목상장수수료 8%, 상하차비 1%, 장내정리비 0.1~0.3% 정도로 훨씬 적다.

또한 법정도매시장은 과표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원이 노출되는데 비해 유사도매시장은 과표제출 의무가 없어 농민이나 상인들이 유사시장으로 물리고 있다.

이와같은 부과금 징수는 농협공판장도 법정도매시장과 거의 마찬가지다.

농경연은 농수산물 유통개선은 도매시장의 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 유사도매시장에서 시설자금 지원하여 법정도매시장으로 양성화시키고 도매시장의 각종 부과금을 대폭 정비, 수수료를 차등화시키며 주차비와 장내정리비 등 잡부금을 일소하는 한편 하역

노동원의 정규 직원화와 하역 기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법정도매시장은 공익성을 감안, 정부대행업체에 포함,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정경로의 유통 종사자 세율의 인하, 농수산물 유통에 관련된 용역 활동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관계당국과 협의, 개선할 것을 추진중이다.

원유값 인상 요구

한국낙농비육협회(회장: 김태신)는 현행 유지방을 3.4%를 기준한 원유 kg당 2백66원에서 28.9% 인상된 kg당 3백43원으로 인상시켜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국제곡물가격 앙등에 따른 국내농후사료 가격의 대폭적 상승과 3차례에 걸친 유류가격 및 전기료 인상등 제반 생산비 상승으로 낙농경영이 위기에 봉착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kg당 원유가격 2백66원으로 인상시켜야 하며, 앞으로 사료가격이 인상될 경우에도 사료가격 인상폭 만큼 이를 원유가에 적용, 조정해줄 것을 요망했다.

아울러 현재의 낙농업계는 사양 기술이나 경영이 미비, 폐업·도산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지적한 이 건의서는 생산비 절감과 생산증대를 위해 농가 지역지도 교육기금으로 원유 kg당 1천분의 1씩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 단신

○ 〈주〉 유한코락스 (대표: 홍 병규)

: 유한양행 〈주〉 방계회사인 동사는 소독제 하라솔 외에 닭, 돼지, 소등 가축의 성장촉진, 체중증가 및 사료효율개선제인 살아있는 동결건조 농축유산균 'SF68' 을 함유한 미생물 사료 첨가제 엘비씨 (LBC) 를 생산 시판개시. 항생제나 화학요법제 처럼 내성 피해가 없는 활성형 세균인 동 첨가제는 부로 일러의 사료 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 한다.

○ 경인기계공업사 (대표: 정 완철)

: 축분건조기 메이커인 동사는 사세 확장에 따라 사무실 이전.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95-8 대동빌딩 505 호

☎ (261) 6709 공장 (713) 7660.

○ 삼양식품 발효유 「요거트」 시판

: 미국 카네선사와 기술제휴로 강원도 문막에 대규모 유가공 공장을 건립한 바 있는 동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떠 먹는 발효유 「요거트」 를 개발. 동제품은 무지유 고품분이 8% 이상으로 유산균 수가 기존 유산균 음료보다 월등히 많아 선진 외국에서 장수식품으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품이다.

○ 全日本 홀스타인 共進會 개최: 한국축육 개량 협회는 (회장: 황 영구) 매 5년마다 개최되는 全日本 홀스타인 공진회 (81. 4. 15 ~ 19)에 낙농가 8명 내외를 파견할 계획이다.

○ 대한제당 〈주〉 사내 계란 판매 실시

: 대한제당 〈주〉 무지개 사료에서는 본 협회와 협조하여 구정을 기해 생산 농가에 체화되어 있는 계란의 소비촉진을 위해 전 사원들에게 계란특가판매를 실시. 동사는 특란을 100 개씩 포장하여 엮가로 전사원들에게 약 33만 여개를 판매하여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 일본의 발효사료 및 볏짚사료에 대한

현지출장: 정부는 일본의 산업 폐기물에 효모를 이용한 발효사료의 현황과 부존 자원인 볏짚의 특수처리 이용등 일본의 자급사료 이용 현황을 현지 확인하여 국내에 이용코저 관련 인사를 일본에 출장시킬 계획.

○ 고려헬트 〈주〉: 사세 확장에 따라 서울 사무소 전화증설 ☎ (778) 1637, 2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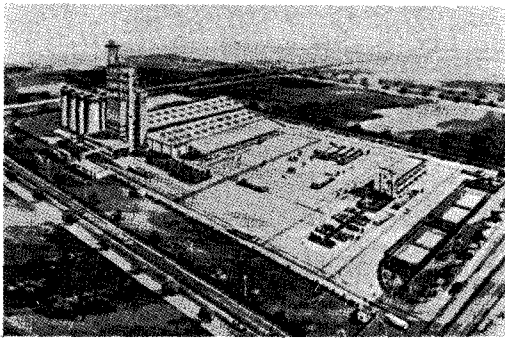
○ 한국카아길 〈주〉 (대표: 박 승만): 수용국변경으로 수원공장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 신전화번호 (수원) 8-2271

○ 삼경가축약품상사 (대표: 홍 상철)

: 사세 확장에 따라 사무실 이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33-1

☎ (762) 7975

○**퓨리나코리아 (대표 : 할란 씨 그로쓰)**
: 사세 확장에 따라 현대식 시설의 군산공장을 준공. 2월 9일 전북 군산 임해공단내 신공장에서 준공식을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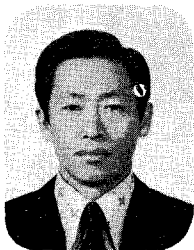
▲ 퓨리나 코리아 군산공장 조감도

○**동남산업사 (대표 : 윤 용구)** : 전동남축산센터에서 상호를 변경하고 면모를 일신하기 장소로 이전

제작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 - 152 (18통 7번) ☎ (634) 4018

수원공장 :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왕림리 401 ☎ (봉담) 279

취급품목 : 계사, 파이프 하우스, 계분제거기, 자동급수기, 모이통, 물통, 각종양계기구, 축사용 부자재등



(윤 용 구)

○**서부배합사료 <주> (대표 : 변 중익)**
: 전화번호 변경 본사인천공장. ☎ (92) 1527~9 (92) 1251~3

○**녹십자수의약품 <주>** : 대표 이사에 장인상(전 한양 건설 <주> 전무이사) 씨가 취임

업계 인사

○**한국바이엘화학 <주> (대표 : 김길원)**

사세 확장에 따른 업무 수행요원 확보를 위해 81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

총 147명 응시 중 아래와 같이 최종 합격자 9명을 발표

최종 합격자 : 김 광권, 김 사현, 고 숙희, 박 구현, 성 범용, 송 용환, 신 영무, 이 대봉, 최 진봉.

○**한일농원 (대표 : 차 두홍)** : 영업부 보강을 위해 영업부 차장에 김 영훈 (전 양지 가축) 씨를 기용하고, 영업부 주임에 정의양 (전 동순 부회장) 씨를 영업부기사에 박 윤식 (한일농원 육성농장) 씨를 발령하고 박 우탁 (영남대졸), 이 회창 (전 자영) 씨를 각각 특채.

○**제일화학 (대표 : 서 정범)** : 사세 확장에 따라 기획 실장에 유 병범 (전 한국화이자 농축부) 대전 주재원에 손 민태 과장대리 (전 양북 개발 물산) 를 기용.

○**삼우화학 <주> (대표 : 이 완상)** : 영업부에 김 정근 (전대 낙농과 졸) 씨를 특채.

○**월간 종합축산 (대표 : 조성용)** : 편집부에 이명순 기자 (전대 축대졸) 를 특채.